‘K-괘불’ 아름다움, 전 세계 알린다

‘한국 괘불의 美’ 국 · 영문 보고서 발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괘불은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대형 불화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거대한 화폭에 정교하게 그려냈다. 이 같은 한국불교의 괘불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의 불화로, 우리나라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대표하는 ‘K-문화유산’이다. K-괘불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국·영문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괘불의 특징을 지역별로 고찰한 학술총서 〈한국 괘불의 미〉의 영문판(제1편 경상지역)과 국문판(제2편 전라지역)을 발간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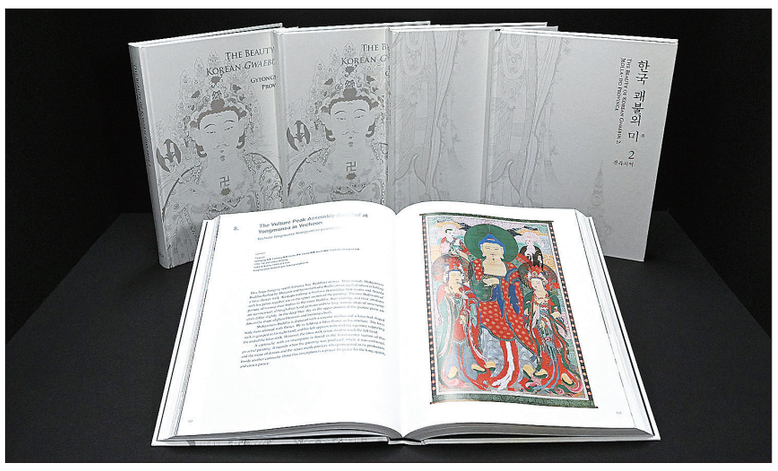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원은 1970년대 중반부터 불교 회화 조사사업을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사찰에 소장된 괘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2015년부터는 (재)성보문화재연구원과 함께 대형불화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그간의 조

대형불화 정밀조사 ‘심화 버전’
경상 · 전라 괘불탱 특징 고찰
화승 의겸, 비현 조성한 괘불들
고해상도 사진들 수록돼 ‘눈길’

사 결과에 미술사 분석을 더한 우리나라 괘불의 조형적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심화 연구 결과를 담았다.

지난 2022년 선보인 〈한국 괘불의 미1: 경상지역〉의 영문판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괘불의 미’ 국 · 영문 보고서.

〈The Beauty of Korean Gwaebul 1 Gyeongsang Province〉는 경상지역 사찰 24곳이 소장한 국가지정 괘불 26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괘불이 생소한 해외 독자와 연구자의 눈높이에 맞게 원고를 보완하고 화기(畵記)와 문양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 책자는 영어권 인문학 학술서와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기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괘불을 단일 주제로 한 첫 영문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처음 내놓은 〈한국 괘불의 미 2: 전라지역〉은 전라지역 사찰 15곳에 있는 괘불 15점과 초본 1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 전라지역의 화승(畵僧)과 도상 분석, 불교의식집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전라지역 괘불의 역사성과 조형적 특징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괘불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창기 괘불과 18세기 전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의겸(義謙), 비현(丕賢)과 같은 여러 화승이 제작한 괘불의 세부 모습을 정교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사진으로 담았다.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 문화유산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누리집 내 ‘괘불 갤러리’에서 주요 괘불의 고화질 사진과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괘불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심화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총서를 적극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 유튜브 ‘첫 100만 구독’ 불교서 나왔다

불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

종교방송사 채널로 ‘최초’
구독자 수 상위 1% 수준
“불교미래 이끄는 구심점”
진우 스님 축하 메시지도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불교TV)의 유튜브 채널이 2월 1일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불교TV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90만명을 돌파했던 지난해 8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구독자 수로는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중 상위 1%(유튜버 분석 플랫폼 기준)에 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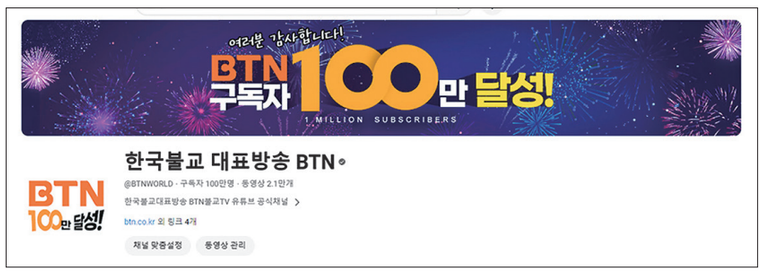
종교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유일하게 구독자 100만명이 넘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실제, CBS 라디오 채널은 10만명, CBS JOY 채널은 55만명, CTS TV 채널은 35만명, PBC평화방송 채널은 35만명 수준으로, 불교TV 유튜브 채널이 2배가량 높은 구독자 수를 보이고 있다.

불교TV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여타 종교 방송사 채널보다 월등할 수 있는 비결은 ‘콘텐츠 경쟁력’에 있다.

불교TV 유튜브 채널은 불교TV가 제작하는 스님 법문·인문 강좌·문화다큐 등 대표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체 콘텐츠 및 쇼츠 영상, 라이브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들의 선호 콘텐츠와 주시청시간대를 고려해 콘텐츠를 요일별 시간대별로 맞춰 업로드 하는 등 시청자와의 소통에도 힘써왔다.

현재 불교TV 유튜브 채널은 2만 1000여 편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월 1일 현재 누적 조회수 약 4억6500회, 시청시간 약 1억1000만 시간을 달성했다.

김유진 불교TV뉴미디어국 유튜브 팀장은 “불교TV 유튜브 채널 구성 중



심인 스님들의 법문 강의가 당연 최고의 베스트이자 스테디 인기 콘텐츠”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를 깨우는 108배(글 구본일)’는 단일 영상으로 400만 조회수에 육박할 정도로 불교TV 유튜브 채널의 명실상부한 대표 콘텐츠”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강 관련 콘텐츠나 인문학 강연들도 잠재 시청자들을 꾸준히 불교TV 유튜브 채널로 초대하는 매력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콘텐츠 경쟁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비대면 신행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2019년 7월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했던 ‘BTN불교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020년 10월 30만명, 2021년 7월 50만명, 2022년 12월 70만명, 지난해 8월에는 9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월 1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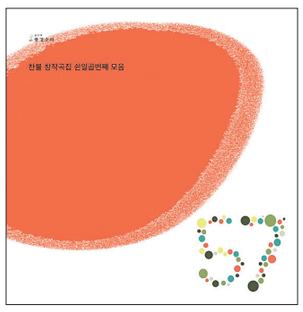
이는 불교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유튜브 채널로 범위를 넓혀도 동일한 양상이다. 불교TV 공식 유튜브 채널(구독자 100만명)을 필두로 △BTN JOY(구독자 21만4000명) △명법문(구독자 11만8000명) △인문학브런치(구독자 15만1000명) △BTN라디오 울림(구독자 13만8000명) △BTN뉴스(구독자 1만6000명) 등 총 15개의 불교TV의 유튜브 독립 채널들이 모두 탄탄한 기반 속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채널의 전체 구독자를 합치면 170만명에 육박한다.

구본일 불교TV 대표이사는 “국내 종교방송사 채널로서 최초이자 동시에 교계방송사 중 첫 100만 구독자 확보는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친화적 수요자의 변화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반응형’으로 발 빠르게 안착시킨 결과”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불교TV는 방송포교의 선두주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많은 대중이 선호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불교TV가 앞으로도 방송 포교의 선두에서 정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풍경소리 57집’



창작 찬불가를 보급해온 불교문화단체 ‘좋은벗 풍경소리’가 찬불 창작곡집 ‘풍경소리 57집’을 발표했다.

이번 ‘풍경소리 57집’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듯하고 아름다운 소리’(경운 스님 명주 스님 김경민 김민수 정민경 최미선 한아름 작사/최미선 작곡)를 1번 트랙에 담았으며, △서울 조계사 차이안 어린이가 부른 ‘우리절 눈사람’(최동호 작사/이종만 작곡) △은석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서연 어린이가 부른 ‘연등하나 작지만’(전병호 작사/이종만 작곡) △청정심원 이다혜 어린이가 부른 ‘마음의 그릇’(덕신 스님 작사/정유탁 작곡)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듯한 선율의 ‘음성공양 올립니다’(중하 스님 작사/서근영 작곡) △‘염주 한 알’(덕신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 △‘꽃 공양 올리오니’(담화림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가 수록됐다. 신중일 기자

제39회 불이상 공모

불이상위원회가 제39회 불이상 연구분야 및 실천분야 수상자를 공모한다. 연구분야는 박사 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 시간강사, 연구교수, 강의교수, 비정년 트랙 교수 등 최근 수년간 불교학 및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와 업적을 낸 학자면 지원할 수 있다.

실천분야는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될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 혹은 불교단체면 후보 자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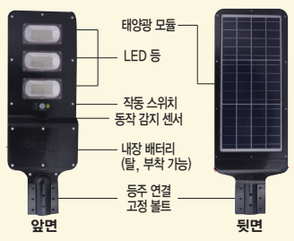
2월 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분야별로 1명 또는 1개 분야만 추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자 발표는 6월이며 시상식은 7월에 열릴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